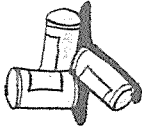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생충학의 방향

- 대한 기생충 학회의 어제와 오늘



조 승 열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생충학계가 지금도 세계에 자랑하고 또 존경하는 고바야시는 곧 1917년 경의전, 1926년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기생충학다운 기생충학을 시작한 사람이다.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던 그 제자와 함께 고바야시는 1945년 일본으로 다시 쫓겨날 때까지 우리 나라의 기생충 및 기생충 병에 대한 논문 450여편을 썼다.

1945년 해방 당시 우리 나라의 자연과학 부분에 자격있는 과학자가 44명 뿐이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기생충 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1990년대는 한마디로 정치의 시기이었지만 우리나라 의학계의 두 기둥이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는 기생충학 강의를 실시하고 있었고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950년~1953년의 6·25 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비견할 수 없는 큰 사건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기생충학적 발전은 모두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참전하였던 여러 나라는 우리 나라의 각종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기생충학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기생충병의 화학요법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이 있었다. 말라리아 치료법과 아메바 치료법의 발전, 특히 primaquine의 말라리아 근치 요법 등

지금은 없어진 서울의대 구내 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건물에서 “대한기생충학회”의 창립 총회를 개최한 것이 1959년 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이었고 창립한 학회가 제1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연 것은 1959년 11월 21일, 지금은 역시 없어진 서울대학교 병원 A강의실에서였다.

우리는 1950년대 말의 암담하였던 사회상 가운데서도 세계적 진보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적인 행동을 하려 했던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학을 시작한 시기는 싫건 좋건 고바야시 하루지로라는 전문 기생충학자가 1916년 조건총독부 병원에 고용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 기



“매년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장내기생충 실태조사 자료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생충 질환 양상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 한국전참전자에서 얻은 발전이었고, 당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던 DDT에 대해서 한국의 몸이(Pediculus corporis)가 저항성을 내고 있다는 짧은 보고는 이후 매개체 전염 질환 관리법 전반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을 강요한 중요한 발견이었다.

1945년 이후 1959년 학회 창설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기생충학 분야에서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 기생충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큰 사건들이었다.

그 첫째가 1954년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의 독립과 곧이어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의 창설이다. 두번째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한국전 후 전정복구사업으로 시행된 ICA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대 서병설, 임한중 선생, 서울 수의대 장두환 선생이 미국 미네소타대학 동물학과에 유학하였고 연세의대 소진택 선생, 방역연구소 주 일 선생은 미국 튜레인대학에서 기생충

학을 연수하고 귀국했다. 이 다섯분이 미국 연수를 끝내고 1956~1958년의 대한 의학협회 종합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술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미생물학 분과에 속하였는데 기생충학 분야는 이미 교실이 독립되어 있어 기생충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독립심도 높아진데다가 학회 발표 논문 수도 세균학 분야에 못지 않게 되어 자신을 갖고 학회 자체의 독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 시기를 우리 나라 기생충학계의 중요한 시기로 보는 이유는 대강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나라의 이후 기생충학 연구는 일본 기생충학의 전통에서 일탈하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나 서구의 기생충학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동물상이나 사회상이 동양의 중국,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아 배울 것이 많았으나 특히 기생충학의 방법론을 이후에 일본에서 수입한 예는 비교적 적었고 일본 기생충학계와의 교류는 개인 단위에서 이

루어졌을 뿐 주류를 이루지 못하였다. 둘째로 1950년대 후반 이후 우리 나라의 기생충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만연하는 기생충병에 대한 대책이었고 따라서 응용분야를 연구하는 기생충학에 대한 대책이었고 따라서 응용분야를 연구하여야 했는데 당시 구미의 기생충학 연구는 이 응용분야에서 마침 발전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학회 창설 이후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생충병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즉 의학, 수의 분야의 기생충학 분야가 발전한 반면, 생태, 분류, 진화 등 순수생물학적 기생충학 분야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한 성격은 이 때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침 이 시기에 우리 나라 의학계에 큰 도움을 준 Scandinavia 세 나라의 의료진은 지금의 국립의료원을 세우면서 우리 나라 의학계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폐흡충에 의한 신경 질환에 대하여 연구하여 좋은 업적을 남겼고 이것은 다시 우리 나라 기생충학 연구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임상학자가 기생충학회 창립에 참여하는데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초 대한기생충학회는 한심석 교수, 이영춘 박사, 전종휘 교수께서 회장직을 맡아 발전시키시고 학회 잡지도 창간하게 되었다. 1963년 12월 서병설 교수가 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대한기생충학회는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기로 전환하게 되었다.

학회 창설 이후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 두 가지를 정리하여 우리 학회가 그간 어

떻게 처신하였고 우리 사회의 기생충학적 지식의 수요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두드러진 예가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변한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이다. 1966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 선포되고, 그후 예방법에 기초한 기생충박멸협회가 창설되고, 몰락하고, 재건되고, 번영하는 과정에 기생충학회 회원의 간여가 있었다. 기생충박멸협회가 발전하는 과정이야말로 기생충학자의 연구와 사회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협회 창립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의 성격 규정, 장비구입과 선택, 새로운 대변검사법의 도입, 새로운 구충제의 도입과 새로운 사용법의 개발, 회충 관리 원칙의 역학적 근거, 토양매개성 질환의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 전망 등 학회 연구결과 하나하나가 모두 즉시 협회를 사업 정책 및 사업 내용으로 전환되어 공업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하던 격동의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용하고 유능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기생충박멸협회의 강한 적응력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생충학적 사태를 잘 관찰하고 때맞추어 시의적절한 연구결과가 나온 데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또 하나의 예가 우리 나라의 기생충 치료제 개발 과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기생충 치료제를 한 가지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이 없는 나라이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구충제나 치료제를 거의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기생충학이 얼마나 유용하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며, 이 분야가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나라 제약계가 외국의 압도적인 제약계의 시장으로 머물던 1970년대까지 기생충학회에서는 외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구충제의 효능을 실험하고 있었다. 당시는 또 우리 나라의 초기 경공업의 성공으로 구충제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빨리 이해한 제약계 일부가 구충제 합성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실마리가 잘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기생충학계는 제약계에 시기에 알맞게 치료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약계는 이를 잘 소화하였다. 구충제 합성 성공례는 항 결핵제 합성과 함께 다른 분야 약제 합성과 개발에도 많은 자극이 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1987년 물질특허의 벽에 부닥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람에 사용하는 구충제의 판로 한계를 제약계는 수의 약품으로 전환, 수출, 플랜트 수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생충학은 우리 나라 기생충 질환이 변화하는 양상을 역학적 자료로 잘 파악하는데에도 성공적이었다. 결핵 전 국 통계의 좋은 예를 본받아 기생충학회는 기협과 협조하여 1971년, 1976년, 1981년, 1986년에 각각 전 국민 1,000분의 1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생충 감염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제시하였고 이제 1991년에는 줄어들어 있는 기생충 감염을 푸근한 마음으로 확인할

단계에 와 있다. 이 자료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생충 질환 양상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회 회원들의 연구 업적에 대해 외국에서도 관심을 표하기 시작하고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회원의 연구 방향도 크게 유행하던 기생충병 연구 이외의 분야로 확산되었다.

서울의대의 장내 흡충류 감염 연구, 연세의대와 한양의대의 자유생활아메바 연구, 고려의대, 중앙의대의 유구낭미충증 연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초 Harvard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대 생물학적 기법의 기생충학에의 응용”운동이 우리 나라에도 곧 영향을 주어 특히 혈청학적 진단 분야에서 발전이 있도록 하였고 분자생물학, 세포면역학, 세포생물학 분야가 기생충학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기생충학자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렐리아, 일본 등지에서 연수하고 돌아와 늘어나는 의대의 기생충학교실을 창설하면서 진출하여 각자의 독립적 연구를 시작하고 분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기생충학은 기생충과 기생충병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하는 분야로 정의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생충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는 각자가 정하여

매진할 뿐이다. 현재 우리 기생충학은 전형적으로 의학기생충학이 중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초과학으로서, 수의기생충학으로서, 국제 질환 연구의 한 분야로서, 여행자 의학으로서 각 분야가 계속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학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 학회의 연구 태도는 그동안 “국내 문제를 국제 수준으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얻은 연구 결과 중에는 의외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많았다. 앞으로는 세계의 기생충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위의 “국내 문제를 국제 수준으로”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기생충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도 면밀한 연구가 계속되어 수입 기생충병을 포함하여 국민 개개인의 기생충병 문제를 기생충이 연관된 사회 문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보다 더 기초적인 분류학, 생태학, 역학, 진화, 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적 분야 연구에 치중하여야 하겠다.

세계적인 기생충학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생충학계가 발돋움하는 데에는 우리들이 극복하여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앞으로 기생충학분야가 발전할 만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기생충학 연구에 있어서 배타성을 배제하고 협동하며 남의 엉뚱하고 바보같이도 들리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함이 있어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한기생충학회 회칙 제2조와 제8조의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이라는 말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생충학회가 또 해야 할 일은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생충학 연구 국가로 계속 발전하려면 유능한 기생충학자를 더욱 육성하고, 해외에도 파견해야 하며 또 우리 나라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맞아 들여, 일꾼으로 키워나갈 줄 알아야 하겠다. 이런 일을 수행하려면 각 기생충학 연구 기관이 부자이어야만 하겠으나 학회 자체도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자립하여 학회로서의 활동에 민활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생충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유용하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가를 이해하도록 과장없이 소개해야 한다. 이 분야가 조용히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는 것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계속 변화할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기생충학으로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적 방법이 아닌 인간주의적 철학으로 세계에 도움이 된 나라라는 평판을 얻는데에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중앙의대교수)